



휴일인 20일 오전 서울 등 외지인을 싣고온 관광버스들이 무등산 증심사지구 입구에서부터 글로벌아파트 앞 1km 구간에 빽빽이 주차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립공원 효과’ 무등산 북적

버스행렬 10배 급증 등산복·식당 매출 ↑ 대구 등 벤치마킹도

지난해 12월27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전국에서 몰려드는 등산·탐방객들로 ‘국립공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무등산 주변 식당과 등산복 매장 등 상가들은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광주시청에는 국립공원 승격의 행정 노력우를 배우기 위해 대구와 전남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등 전국에서 ‘무등산’이란 상호를 쓰는 식당들까지도 국립공원 지정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후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광버스가 평일 30~40대, 토·일요일 100~150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 승격 전 평일 1~2대, 휴일 20~30대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무등산을 찾는 등산·탐방객의 밭길이 이어지면서 인근 등산용품 매장과 식당들의 매출은 급상승하고 있다.

무등산 증심사 인근 등산로 초입에 위치한 아웃도어 브랜드인 L매장의 경우 국립공원 승격 이후 매출이 최대 50%까지 올라섰다. 이 매장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조만간 전국 매장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등산 증심사 인근 식당들 가운데도 주말 매출이 많게는 50% 이상 늘어난 곳이 있으며, 무

등산 등산로에서 다소 떨어진 운립중학교 인근 상가들도 겨울 비수기에도 주말·휴일 매상이 10% 이상 늘어났다.

광주가 아닌 타지역에서 ‘무등산’을 간관으로 내건 식당들도 무등산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최고급 한우 전문식당인 ‘무등산’의 매니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이라는 상호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으며, 단골들도 ‘무등산’이란 이름에 더출정감이 느껴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무등산을 상호로 사용한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규모에 맞는 편의시설이 확충되기도 전에 무등산으로 등산객들이 몰려들면서 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등산을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차트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매주 주말이면 무등산을 오른다는 김주성(49·광주시 동구 학동)씨는 “광주시민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하고, 자부심도 느끼지만 현재 까진 불편한 점이 더 많다”면서 “하루빨리 무등산의 품격에 맞는 주차장 등 시설이 확충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무등산에서 만난 외지인 하일민(54·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씨도 “북한산이나 도봉산 등은 주차장 등 기본시설과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등산객이 몰리더라도 어느 정도 질서 있는 모습을 유지한다”면서 “무등산의 경우 절경은 너무 매력적이었지만, 주차장 입구에서 등산로로 이어지는 초입 부분이 너무 깊은데다가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주차장)입구도 한곳뿐이어서 드나드는데 불편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무등산 증심사 인근 식당들 가운데도 주말 매출이 많게는 50% 이상 늘어난 곳이 있으며, 무



20일 오전 무등산 산행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탐방객들이 가족 등과 함께 증심사 입구길을 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추 29%·시금치 48%·양배추 49% ↑

겨울 한파에 전남 채소가격 ‘폭등’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전남지역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92%를 차지하는 겨울배추(월동배추)를 비롯해 시금치, 양배추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배추는 도매가격 기준으로 포기당 275원으로 평년 2140원보다 29% 올랐다. 또 시금치는 kg당 4473원으로 평년(3026원)보다 48%, 양배추는

1106원으로 평년(744원)보다 49% 가격했다.

배추와 시금치는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2%, 11%가 늘었지만 한파와 폭설 등으로 작황이 매우 나빠 생산량이 줄었다. 또 밭에 모종을 옮겨심은 10월 중순의 뜻은 날씨로 작황 부진의 한 이유다.

그나마 대파는 1403원으로 평년(1398원)과 비슷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적기 수확과 출하유도, 봄배추 등 조기파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 지역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3660㏊로 전국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파는 21%(2964㏊), 시금치 20%(676㏊), 양배추는 19%(1122㏊)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목포시 해수부 유치 본격 나섰다

해양 영토주권 확보… 市·의회, 인수위에 건의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해양수산부 부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여수·목포시가 본격적인 해수부 유치에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것과 관련, 최근 해수부 청사를 여수에 들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

여수시의회는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1%를 점유하고, 항만

도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30% 이상인 만큼 해수부 청사는 전남에 유치해야 그 중 여수시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목포지역에서도 목포시, 목포해양대, 목포수협 등 8개 기관이 중심이 돼 해수부 청사 및 소속 기관을 목포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인수위에 보냈다.

이들 기관은 “각종 수산물 등 해양자원의 보고인 1만 5천㏊의 서해의 해양 영토 주권 확보를 위해 서남해의 핵심 어업기지인 목포에 해수부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일 인수위에 해수부의 전남 유치를 요청하는 공식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해수부 유치에는 전남을 비롯한 부산, 세종시, 인천 등지의 자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수·목포시 기자 mtlm@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광주시, 고충처리 만족도 전국 1위

광주시가 전국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가장 잘 처리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고충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에서 광주시는 종합만족도 61.27점으로 전국 16개 시·도(평균 39.24점)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 민원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부터 10개월

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고충을 제기한 민원인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광주시는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친절성, 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 처리결과의 공정성과 충분한 근거제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2년 7개월간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시민과 대화’가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매주 ‘시민과 만남의 날’을 운영해 현재 총 118회, 438개 팀 1820명의 시민과 만나 576건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광주시 한석란 감사관실 조사팀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처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올해 일자리

6만4000개 창출 계획

전남도는 20일 “올해 일자리 6만 4000여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이 가운데 35%인 2만 4000명의 일자리는 근로계약 1년 이상 상용 일자리로 창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용 일자리 2만 1043명보다 3000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 공동체 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또 2017년까지 500개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올해 20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107개 사회적 기업도 일자리사업과 제품 판매 지원 등에 나선다.

전남협동조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수축산·소상공인 등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발굴, 지역별 취업 박람회 개최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삼성카드폰 9,000,000원 1,880,000원
더불어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제일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씨티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저축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울명철학

人間의 길 흥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에서도 죽듯이 제대로 뜯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헌신 낭자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과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견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마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마두수)로 수십년을 묵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함. 예술과 품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자곡리 95-2
(광주암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KTFCS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 the 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아동요리 자격증반&폐백자격증반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PM2:00~PM4:00(12주)
교육과목 | 세계디자인 푸드컬러, 꽃꽂이, 원안, 테이블 세팅

푸드코디네이터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리스트, 푸드플래너, 테이블장식가, 레스토랑컨설턴트, TV주강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2013년 1월 20일 개강!

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PM1:00~PM3:00(12주)
교육과목 | 김치 이론, 담그기 실습, 김치 퓨전 요리, 김치 스티커링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김치 제작가, 문화예술·평생교육원 강사, 부업, 창업
2013년 1월 19일 개강!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과목 | 아동요리지도사, 아동요리의 음악·아동요리의 예술·아동요리 시연